



## 미 증시, 연말 거래 부진에도 소폭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27 일(수) 미국 증시는 연말 폐장에 따른 관망심리 속 신규 재료나 이벤트가 부재했음에도,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지속, 사상최고치 경신을 앞둔 기술적 매수세 유입 등으로 소폭 상승 마감(다우 +0.3%, S&P500 +0.14%, 나스닥 +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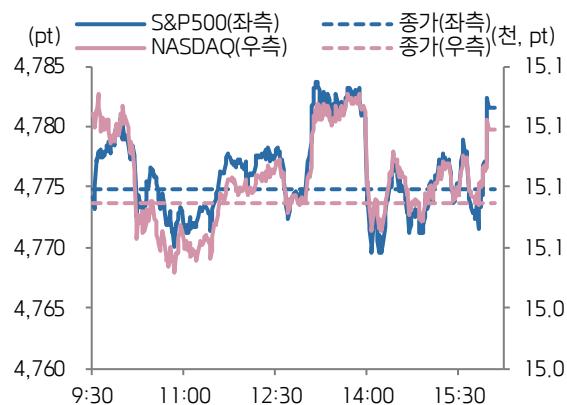
예맨 반군 후티는 홍해 항로를 지나가는 화물선들을 공격하면서 일대 긴장감 고조. 이로 인해 국제유가(WTI)는 전일 대비 1.93% 상승한 74.11 달러 기록하며 유가는 상승. 이 같은 상황에도 글로벌 해운업체인 덴마크의 머스트는 며칠 내로 홍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고 알리며, 그 외에도 프랑스의 CMA CGM 등 글로벌 해운사들 또한 홍해 항로 복귀를 시사.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 월부터 11 월까지의 공업이익은 전년대비 4.4% 감소하며 전월치(10 월 YTD 기준)인 -7.8% 대비 마이너스폭 축소. 11 월 한 달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9.5% 상승하며 4 개월 연속 상승세 기록. 이처럼, 중국 내 공업 분야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됨에 따라 중국 경기 부양책 등의 효과가 기업들의 성장 회복을 이끄는 모습 .

한편, 연말을 맞아 전반적으로 한산한 금융시장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는 내년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 미국채 2 년물 금리와 10 년물 금리는 모두 전일 대비 약 11bp 하락하며 각각 4.2%, 3.7%대를 기록. 시장 금리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달러화 지수 또한 100.9pt 를 기록하며 약 5 개월래 최저치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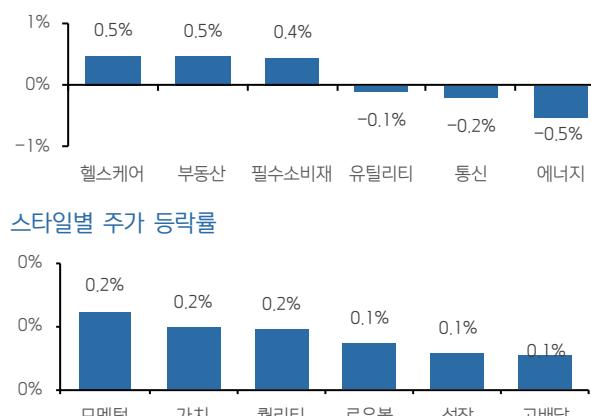
업종별로 살펴보면, 헬스케어(+0.5%), 부동산(+0.5%), 필수소비재(+0.4%) 등의 업종이 상승한 반면, 에너지(-0.5%), 통신(-0.2%), 유ти리티(-0.1%) 등의 업종은 하락. 주요 종목별로 살펴보면, 아마존(-0.05%), 알파벳(-0.78%) 등은 하락한 반면, 애플(+0.07%), 메타(+0.86%), 테슬라(+1.89%), 엔비디아(+0.31%) 등은 상승하며 혼조세 양상. 애플(+0.07%)은 애플워치 특허 침해건에서 백악관이 결정한 수입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며 최근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4 거래일 만에 하락세 멈춤. 테슬라(+1.89%)는 2024년 중 모델 Y 의 개량 버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로 전일에 이어 상승세 지속.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13.50	+0.42%	USD/KRW	1,293.93	-0.02%
코스피 200	352.46	+0.58%	달러 지수	100.95	-0.51%
코스닥	859.79	+1.35%	EUR/USD	1.11	+0.55%
코스닥 150	1,384.38	+2.01%	USD/CNH	7.15	+0.14%
S&P500	4,781.58	+0.14%	USD/JPY	141.83	-0.4%
NASDAQ	15,099.18	+0.16%	채권시장		
다우	37,656.52	+0.3%	국고채 3년	3.212	-0.4bp
VIX	12.43	-4.31%	국고채 10년	3.255	-1.1bp
러셀 2000	2,066.21	+0.34%	미국 국채 2년	4.235	-11.7bp
필라. 반도체	4,214.59	+0.17%	미국 국채 10년	3.785	-11.2bp
다우 운송	16,025.94	-0.49%	미국 국채 30년	3.944	-10.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528.38	+0.15%	WTI	73.92	-2.18%
MSCI 전세계 지수	723.77	+0.34%	브렌트유	79.44	-2.01%
MSCI DM 지수	3,162.65	+0.32%	금	2089.1	+0.93%
MSCI EM 지수	998.53	+0.53%	은	24.38	+0.96%
MSCI 한국 ETF	64.85	+0.9%	구리	394.35	+1.2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5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06%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90.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연말 폐장에 따른 거래부진 가능성

### 주요 체크 사항

-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종료에 따른 개인의 커버 매수세 지속 여부
- 국내 건설사 관련 뉴스풀로우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국내 증시가 2023년 마지막 거래일(미국은 2 거래일)을 앞둔 상황 속에서 올 한해를 반추해보면, 코스피(+16.9%), 코스닥(+26.6%), S&P500(+24.5%), 나스닥(+44.3%) 등 주요지수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기록(27일 종가기준). 이는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를 연출했던 2022년과 달리, 2023년은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성과 회복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던 한 해로 볼 수 있음.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당장 다음주부터 다가오는 2024년의 증시 방향성이 될 것. 우선 주가가 자체에 모멘텀이 있다는 전제하에 과거의 연간 수익률 패턴을 살펴보면, 내년에도 주식 시장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실제로, 2000년~2023년까지 23개년 동안 당해(T)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그 다음해(T+1)에도 “플러스” 기록했던 적은 코스피가 23회 중 11회, 나스닥이 23회 중 12회로 집계. 반면,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이후 다음해에 ‘マイ너스’를 기록했던 적은 코스피가 23회 중 6회, 나스닥이 23회 중 4회로 집계. 즉, 빈도 측면에서 주가가 플러스 모멘텀을 받은 이후 다음해에도 동일한 모멘텀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임.

물론 향후 증시 전망을 하는데 있어서 매크로, 펀더멘털을 고려해야 하는데, 시기 상의 차이만 존재할 뿐 연준, ECB, 한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사이클 돌입은 증시에 긍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시켜줄 것으로 판단. 고금리 여진,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내년 미국, 유럽 등 전세계 성장을 둔화는 불가피한 것은 사실(OECD의 전세계 성장을 전망치 23년 2.9% → 24년 2.7%, IMF의 전세계 성장을 전망치 23년 3.0% → 24년 2.9%).

그렇지만 최근 삼성전자 주가 강세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업황 개선, 주요국들의 쇼어링 정책 등으로 전세계 교역은 오히려 회복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OECD의 교역 전망 23년 1.1% → 24년 2.7%, IMF의 교역 전망 23년 0.9% → 24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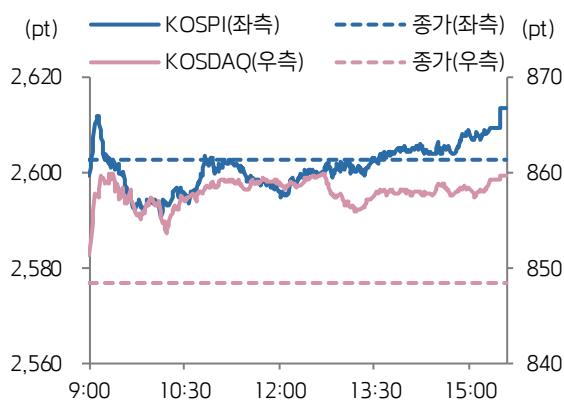
이번주 코멘트에서 언급했듯이,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 과정이 수반될 것이며, 향후 1~2개월 구간에서는 중간중간 연준 정책 전환 시점 및 인하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은 간헐적으로 출현 할 수 있음. 하지만 상기 내용을 고려 시 내년에도 주식 비중은 늘려나가는 전략이 타당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배당락으로 인해 하락 출발 한 이후 장 종반까지 변동성 장세를 이어갔으나, 장 후반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한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1.4%).

금일에는 연말 폐장에 따른 거래 부진 속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종료에 따른 개인의 매수세 지속 여부 vs 단기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등 수급 상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면서 제한된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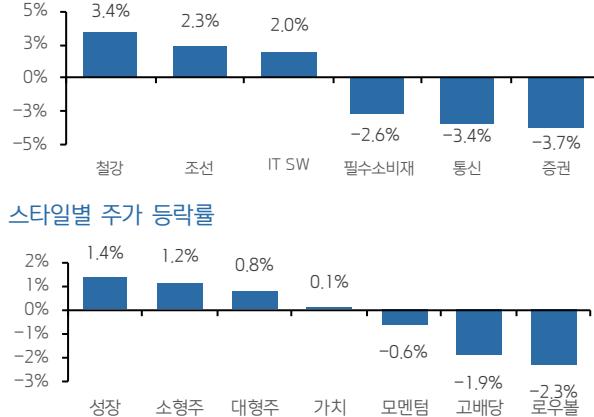
업종 관점에서는 워크아웃 등 국내 건설업종을 둘러싼 불확실성, 홍해의 컨테이너선 복귀 가능성에 따른 유가(-2.3%) 반락 등 시클리컬 업종 내 차별화 장세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 반면 최근 IT 업종의 주가와 수급 모멘텀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초 예정된 CES 2024 기대감이 조기에 유입될 가능성을 고려 시 금일에도 해당 업종 내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

## KOSPI &amp;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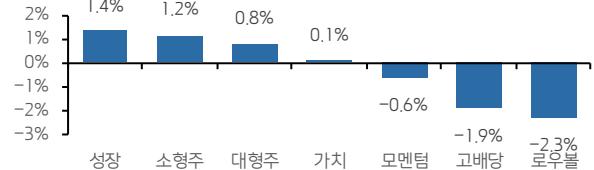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